

하정웅 미술관 '하나오카 이야기' 모티브 국제 학술심포지엄

“5·18과 하나오카 사건 연계해 조명을”

1945년 하나오카 광산서 일어난
조선인·중국인 419명 학살 사건
마쓰다 도키코, 소설로 진실 알려

일본인 학자 3명 심포지엄 참석
“광주정신, 도키코 생애와 겹쳐져”

“광주 5·18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광주시민들에
게는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갔다고 봅니다. 윤석
열에게는 80년 5·18 당시 계엄령이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자신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선포했던 것 같
아요. 반면에 광주시민들은 80년 전두환 일당의
신군부가 확정한 계엄령으로 학살을 당한 트라우
마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던 것은
더 이상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
한 심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18일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는 하정
웅컬렉션 ‘하나오카 이야기’를 모티브로 국제 학
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인
학자 3명이 참석해 논의를 펼쳤다. 차타니 주로쿠
아키타현 역사교육협의회 회장, 다카하시 히데라
루 아키타현립대 부총장, 에자키 준 마쓰다 도키
코회 대표 등이 그들이다.

“하나오카 사건”은 1945년 6월 일제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오카 광산에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를 투입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후 일본 군
경에 의해 419명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일본 작가 마쓰다 도키코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땅 밑의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집필해 일제 만행
을 고발하고 사죄의 뜻을 전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하나오카 사건’ 이후 시인과 화가 등 예술가들이
당시 사건을 목판화(하나오카 이야기)로 제작했
으며, 하정웅 명예관장이 소장하게 된다.

“마쓰다 도키코의 문학과 생애”를 주제로 한 심포
지엄에서 3명의 일본 학자들은 기초강연, 발제를
했다. 다카하시 히데라루 부총장이 기초강연을 하
고 에자키 준 대표(나쓰다테 사건과 하나오카 사
건의 진상)와 차타니 주로쿠 회장(한국으로 확장
되는 마쓰다 도키코 문학과 생애)은 발제를 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오후 7시 광주 충장로 라마
다호텔에서 일본인 학자들을 만났다. 통역은 이날
‘문명란과 마쓰다 도키코의 저항정신’을 주제로
발제를 한 김정웅 전남과학대 교수가 맡았다.

심포지엄이 열린 날이 때마침 역사적인 ‘5·18’이
라 일본학자들도 5·18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다카하시 히데라루 부총장은 “12·3 비상계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중지를 시켰다는 점에
서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마쓰다 도키코의 소설 ‘땅밑의 사람들’
에 묘사했던 탄압과 잔인한 일들은 광주 5·18을 통
해해도 그 잔혹성 등을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주최 심포지엄이 끝나고 일본 학자 3인이 인터뷰에 응했다. 왼쪽부터 다카하시 히데라루 아키타현립대 부총장, 차타니 주로쿠 아키타현 역사교육협의회 회장, 에자키 준 마쓰다 도키코회 대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마쓰다 도키코 작가의 뜻을 받들어 일본인 학자 3명이 19일 오전 군사정권과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문명란 시인의 국립5·18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여지를 준다”고 전했다.

에자키 준 대표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강 작가
의 작품을 많이 읽었다. 광주가 5·18을 통해 민주
주의와 평화를 획득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일본의 하나오카 사건은 자국민이 아닌 한국인과
중국인의 항쟁정신을 다뤘기 때문에 독특함이 있
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타니 주로쿠 회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대가 예전의 국회로 들어갔지만 총을 쏘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며 “계
엄령이 해제되자마자 일본에서는 즉각 보도를 했
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히데라루 부총장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광주에 와보니 상상 이상으로
그런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마스터 도키
코와 광주 5·18을 연계해 접근한 김정훈 교수의 관

점이 이색적이었다”며 “문명란 시인과 마쓰다 도
키코의 저항정신을 조명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본
다”고 언급했다.

차타니 주로쿠 회장은 문명란 시인과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2014년 광주에 방문했을
당시 문 시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차타
니 주로쿠 회장은 “문 시인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저항시를 쓰고 제국주의 비판을 하는
작품을 쓰는 면이 남다르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그는 5·18에 광주에서 심포지엄을 하게 된 데 대
한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하나오카 이야기를 다
룬 소설과 판화는 평화를 주제로 하기에 광주시립
미술관과 가장 부합하는 작품”이라며 “평화와 민
주화를 위한 광주시민의 저항과 광주정신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 휴머니즘을 견지했던 마쓰다 도
키코의 생애와 겹쳐진다”고 부연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70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 피아노

〈심사위원〉
구재향 (호남신학대 교수)
박규연 (군산대 교수)
서윤진 (광주교육대 교수)
신수경 (전남대 교수)
조성경 (전남과학대 교수)

◇ 피아노 고등부 1,2학년
▲ 금상
16 전평강 (전남예술고2)
17 오다빈 (여수화양고1)
▲ 은상
8 최운서 (광주예술고2)
11 주지율 (여수한영고1)
14 장동원 (제원예술고2)
22 전우영 (고려고2)
▲ 동상
2 이소원 (전남예술고1)
5 김영은 (2008년생)
6 김효주 (금호중앙여자고2)
9 최지우 (광주여자고2)
10 박규량 (광주금호중앙여자고2)
13 문술 (상무고2)
15 조승효 (대광여자고2)
19 김예지 (전남예술고2)

◇ 피아노 고등부 3학년
▲ 금상
7 이찬희 (국제고3)
16 김태성 (전북제일고3)
▲ 은상
1 정다슬 (광주예술고3)
2 안나현 (전남예술고3)
3 양다영 (서영여자고3)
6 최소정 (군산영광여자고3)
14 오재연 (이리여자고3)
15 박상준 (광주예술고3)
17 이채은 (여수충무고3)
▲ 동상
4 이지민 (상일여자고3)

5 정민욱 (첨단고3)
◇ 피아노 초등부 5,6학년
▲ 최고상
78 이슬하 (근별초6)
▲ 금상
1 주아진 (무장초5)
4 선민욱 (조봉초6)
24 최지윤 (광주교대광주부설초5)
38 박소윤 (전주한들초5)
50 안수혁 (광양마동초6)
52 김지태 (태봉초5)
61 김소울 (용두초5)
67 정산 (일곡초6)
74 송대원 (광주학강초6)
83 양겸 (광양중앙초5)
95 전현겸 (전주우전초6)
97 노유진 (전주효천초5)
129 김류아 (광주효덕초6)
▲ 은상
2 신한서 (양지초5)
6 김유민 (고흥동초6)
12 서준 (전주새연초6)
26 신수비 (일동초5)
31 박별 (만호초6)
39 박도영 (광주효덕초5)
42 박주성 (태봉초6)
43 신유연 (산정초5)
45 이서연 (광주교대광주부설초6)
51 이해원 (금부초5)
56 윤하영 (광양마동초5)
62 박리원 (유촌초5)
63 이채니 (효천초6)
68 전시영 (여수송현초5)
70 윤세영 (산정초5)
80 김서윤 (부안동초5)
88 김시훈 (목포항도초6)
98 김주하 (근별초6)
109 조창운 (전주교대전주부설

초5)
121 소지유 (은빛초6)
123 김지인 (외서초5)
149 김시은 (영천초6)
▲ 동상
5 박태인 (담양남초6)
10 윤이나 (용주초6)
11 김희서 (광주월산초6)
17 황재민 (조봉초6)
19 강태인 (남평초6)
27 이건우 (광주삼육초6)
30 이신애 (겨자씨크리스찬스쿨6)
32 정수지 (정읍서초6)
33 송재리 (일신초6)
36 서에나 (겨자씨크리스찬스쿨6)
37 김민지 (화개초6)
41 김예나 (일동초6)
54 박이현 (주월초6)
64 박소연 (금부초6)
69 박민지 (신창초6)
75 박정은 (은빛초6)
76 이아윤 (여수송현초5)
84 박정인 (라온초5)
85 김민선 (조봉초5)
89 임선율 (화개초6)
90 박예승 (동곡초6)
94 조성빈 (광주방림초6)
100 이진하 (무안행복초6)
103 최지혁 (일곡초6)
120 이견희 (정읍초6)
130 윤유나 (영천초6)
135 문설아 (담양남초6)
142 장서윤 (블로초5)
143 최해빈 (신대초6)
147 김세아 (전주서신초5)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광주 대표 공예작가 키운다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광주 예선... 다음달 5일까지 6개 분야 작품 공모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은 지역을 대표
하는 공예품을 발굴·장려하기 위한 ‘제55회 대한
민국공예품대전 광주광역시 예선’을 연다.

이번 광주지역 예선대회는 오는 6월 5일까지
‘목·칠’ ‘금·속’ ‘도자’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6개 분야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참가자격은 광주시 소재 증명이 가능한 공예사
업자, 개인 및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예선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접수와 현
장 접수가 모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대한민국공예품대전 홈페이지
에서, 현장접수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광주디

자인진흥원 3층 전시장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이번 광주지역 예선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수상과 함께 개발장려금(시상금) 수여와 본선 참
가 자격이 동시에 부여된다. 제55회 대한민국공예
품대전 본선 심사는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의
주관으로 오는 8월 충남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공예품대전은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협동
조합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가 주관하며 올해 55번째를 맞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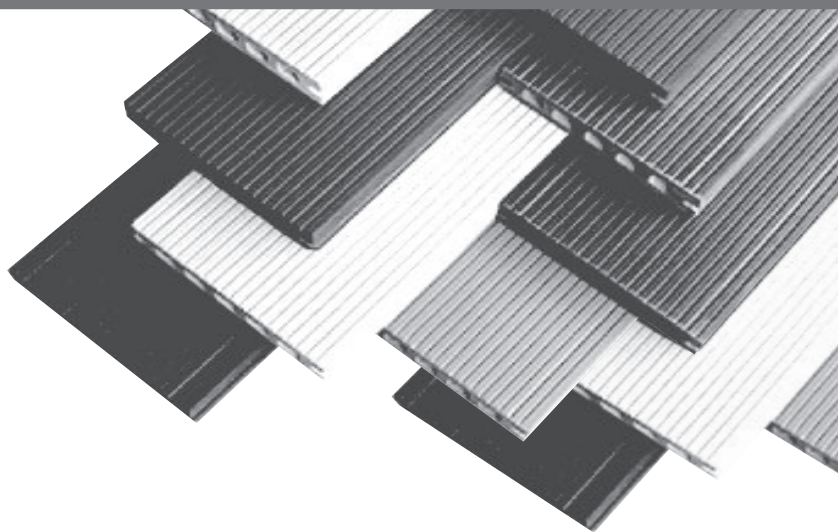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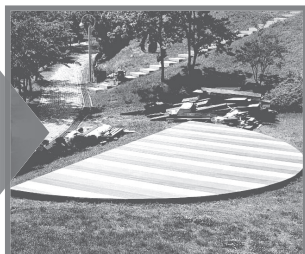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